피해 아동들의 안식처 '문수의 집'

아동학대 5년새 46%급증, 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주남저수지 아동 유기 사건' 처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만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대상 학대는 2008년 754건에서 2012년 10월 현재 1104건으로 5년간 350건, 약 46%가 늘었다.

영·유아 학대가 늘어나는 데는 이혼 등의 가정 해체, 한 부모, 미혼 가정 등 새로운 가정 형태의 증가, 사회적·경제적 고립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양육 지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 정희열 문수의 집 상담사는 "아동들의 학대피해사례는 다양하지만 보통은 방임으로 인해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서 또래에 비해 언어성 및 사회성 발달이 더디어지고 가스요금도 미납돼 냉방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고립이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불교계 운영시설 가운데 학대 피해아동을 입소 보호하는 대표적 시설은 구미학대아동그룹홈 문수의 집(시설장 공곡)이다.

문수의 집 종사자들은 아동별로 개별 심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놀이를 통한 심리치료 및 언어치료를 제공한다.

공동생활가정에서 편안히 생활

1577-1391로 신고해야

문수의 집은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2000년에 개소해 2003년 3월 구미시의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91을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 받고 있다. 이웃이나 혹은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아동가정에서 학대피해아동들의 구체적인 학대정황을 파악한 내용을 신고받으면 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원가정보호 조치를 할지 아니면 격리보호를 통해 아동을 학대행위자와 분리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학대피해아동의 학대사실이 심각하고 원가정 보호를 통해서는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지자체인 구미시를 통해 입소의뢰를 하고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방치되고 버림받거나 정신·신체적 학대를 받은 수많은 아이들이 문수의 집을 거쳐 갔다. 현재 입소정원은 4명으로 이들은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돼 원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되고 있다.

문수의 집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한다. 일반적 아동시설은 규모도 크고 간판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곳이어서 아동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공곡 스님은 "문수의 집은 공동생활가정이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양육·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문수의 집 아동들은 방과 후에 보습학원, 태권도학원, 개인과외 등을 하며 일반 아동들처럼 지내고 있다. 하지만 학대로 인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문수의 집 종사자들은 아동별로 개별 심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놀이를 통한 심리치료 및 언어치료를 제공한다.

정희열 상담사는 "상처받고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안정"이라며 "일반인 모두가 아동학대신고상담전화인 1577-1391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이 공통번호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적극적 신고를 해야 작은 관심이 학대로부터 힘없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054)455-13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찰-복지기관 잇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조기룡 교수, 불교사회복지포럼서 발표…라오스 종교인사 방한, 국내복지현황 살펴

양극화의 위기 속에 사회통합과 중생구제의 기대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2월 6일 A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년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조기룡 조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발표했다.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불교적 사상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 방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 했다. 바로 중도와 평등사상이다. 조 교수는 "원효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통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불교를 통합해 통불교를 제창 했듯이 우리사회의 대립적 견해와 입장을 수용·통합해 중도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한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함경〉에 나타난 평등사상을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조 교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불교NGO 활동이다. 조 교수는 "불교NGO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의 부(富)가 부당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배정의운동을 실천해야 한다"며 "분배정의운동은 정신적 베풂에 기반을 두고 물질적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2월 6일 AW 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조 교수는 두 번째 방안으로 "경제적 이유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일은 정부에서 구축한 사회안전망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 방지를 위해 총무원-교구 본사-말사의 사회복지시설간 연계를 강화해 불교민간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조기룡 교수는 사찰 신도 연결망을 통한 취업연계망을 강화하고 의식적 양극화의 상(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 연결망을 통한 구직방법은 구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며 "공식적인 구직경로보다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해주고 구직자의 인간적 신뢰를 담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 제반문제를 사회가 양극화됐다고 바라보는 사고방식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해결도 어렵게 한다"며 "불교적 시각으로 선입견과 고정 관념 및 상(相)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조 교수를 비롯해 최경구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가 '사회적 양극화 실태: 주요 3가지 현황을 중심으로'를, 이성기 교수(인제대 사회복지학과)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라오스 불교문화 복지교류를 위해 12월 8~12일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스님들과 국가재건위원회 종교국 공무원 등 7명을 초청했다.

라오스 종교계 주요인사들은 동국대와 종단 연수시설인 전통불교문화원을 비롯해 조계사와 마곡사,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탐방했다. 이외에도 서울, 경기, 공주, 경기 울산 지역의 의료, 사회복지시설과 정부단체 및 기업 등을 방문해 국내 복지현황을 파악했다.

복지재단은 "라오스에 교육, 복지, 의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이번 '한국-라오스 불교문화 복지교류' 사업은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을 관람하고 통도사에서 저녁예불, 발우공양 등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등 한국과 라오스의 불교계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국가간 불교네트워크(인드라망)를 강화하는 계기를 형성한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불기협과 홍보 제휴 협약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와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가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이강식 회장은 12월 3일 STX 남산타워 만복림에서 불기협 선원빈 기자상 시상식에 이어 진행한 협약식에서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앞으로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환자 치료비 지원·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불교계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함께 하게 된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지금껏 기자 분들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번에 홍보 제휴 협약식 체결을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동했다"며 "앞으로 불교계 장기기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식 한국불교기자협회 회장과 일면 스님이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한 제1회 생명나눔상은 현대불교 이나은 기자에게 돌아갔다. 그 동안 지속적인 장기기증 보도로 불교계 생명나눔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상은 올해 시작해 매년 생명나눔운동 확산에 기여한 기자 중 1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이나은 기자

저소득 아동들에게 책가방 선물하세요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경향신문(대표이사 송영승)과 201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책가방 보내기 '선재의 선물'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은 올해는 조손·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도서를 선물할 계획이다. 캠페인은 후원자들이 12월 31일까지 성금 5만원을 기부하면 어린이 책가방을 구매하고, 아름다운동행측이 학용품과 도서를 더해 2013년 1월 중 해당 가정 어린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02)737-9595 후원: 농협 301-0118-4499-3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이나은 기자

이번엔 다문화 모자가정 위해 뛴다

진오 스님, 12월 11일 4대강 자전거길 1천㎞ 달리기

이주노동자를 돕기 위해 108㎞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해 화제를 모았던 이주 노동자 단체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이 12월 11일 다문화 모자가정을 위한 1천㎞ 달리기에 들어갔다.

진오 스님은 한국에 시집온 이민여성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에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2세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달린다.

다문화 모자가족이 쉼터로 활용할 공동주택 마련을 위한 이번 달리기에서 한 계좌에 10만원씩 모두 108계좌를 후원받아 기금을 확보하는 게 스님의 계획이다.

진오 스님은 다문화 어린이집, 다문화 대안학교도 계획중에 있다.

이번 4대강 자전거길 1천㎞를 달리기 위해 스님은 평일에 15㎞씩, 주말에는 4~5시간씩 30㎞ 이상을 달리며 훈련을 해왔다.

진오 스님은 "1천㎞를 달리며 제가 흘리는 땀방울만큼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다문화 모자보호시설 건립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신도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 방법. 환자와 가족분이 확인 가능

1. 환자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치유자
2. 조상령, 객영혼, 애기령, 지박령, **영가확인 천도제**
3. 최면이 안되는 환자와의 소통과 교류 (최면과는 차원이 다름)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확인 **(질병의 원인파악)**
5.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
6. **인체전기장을 통한 사람의 속마음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파악으로 삶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 질병, 심리, 영가확인 몸에 숨은 영가**
7. **스님들의 영가장애 천도, 불자분들의 영가장애 확인 천도**
8. 파동교감법, 영혼과의 대화법,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진동교감법을 통한 난치병과 불치병의 치유
9. 중풍, 치매, 당뇨, 디스크, 심장병, 화병, 빙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이상, 환청, 환시, 무속병, 무속인 대물림의 단절,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10. **영가의 수준 확인 저급영가-한과집착질병호소=무속신앙 / 중급영가-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도 닦다죽은 영가=다양한 종교, 철학, 신비함 추구 / 고급영가-전생, 깨달음에 대한 갈망 종교를 초월한 영성**
11. **죽은 영혼이 거치는 사후세계의 3단계변화의 의식과정 이해**
12.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빛의 다양한 차원의 세계**
13. **내가 이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 영혼의 목적이해=현재의 삶의 고통 속 에서 깨우쳐야 할 부분을 이해함**
14. **수행에 진전이 없는분,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고 싶은분, 내안에 길 찾고 싶은 분**

◆ **10회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불자님중에 영가천도와 기도법 잠재능력, 퇴마천도능력전수생모집** ◆

· **교육은 화.목요일 오후 2시와 주말 토.일 오후 2시에 선택**
· 교육과정은 스님의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사찰 출장지도합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침니다.
· **그동안 교육받은 스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을 통한 교육** **인체전기 파동의학**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